

미디어법 상정, F1지원법 불뚫 튀나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기습 상정에 따른 민주당의 실책 행위로 26일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특히,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7일 개최될 예정인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도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 전남도의 최대 현안인 'F1 지원법'(F1 포물러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의 상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6일 오후 야당 의원들이 한미 FTA 비준안 논의를 거부한 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직을 점거한 가운데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희진 의원과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날 양당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의결했다. /연합뉴스

26일 문방위는 한나라당이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해 출입을 차단하는 바람에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외통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논의 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측의 위원장직 점거로 인해 초장부터 공전했다.

여야는 간사 합의로 일단 이날 예정됐던 통상절차 관련법의 공청회 실시에 합의해 오후 일정을 진행했지만 공청회가 끝나자마자 다시 민주당 측이 위원장직을 점거하는 등 진통을 겪다 FTA 비준 동의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은 의결했다.

여야 극한 대치 ... 국회 상임위 대부분 스톱

오늘 개최 국제경기지원특위 공전 가능성

한 대체 토론을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물러와 반발하는 바람에 개최조차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여야의 극한 대치로 27일과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물리적 충돌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미디어관련법 기습상정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어 국

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직권상정 압박을 가하는 등 정쟁법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기습 상정 직후부터 점거 중인 문방위 회의장에서 이를 규탄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MB악법'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다

졌다.

한편, 국회가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 27일로 예정된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 개최 여부도 불확실하게 됨에 따라 전남도의 현안인 F1 지원법의 처리는 더욱 어렵게 됐다.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도부를 연쇄 접촉하며 국제경기지원특위 개최를 설득에 나섰지만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F1 지원법은 국제경기지원특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타짜'도 아닌데 ... 속고 속인 정치권

한, 고흥길 위원장 연막전 속 24일 기습상정 결정 민주당, 대비 허술 ...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다" 자책

미디어관련법의 문화체육관광부 송홍신(이하 문방위) 기습 상정은 한나라당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민주당은 허술하게 대비하다가 무방비 상태로 법안 상정을 지켜봤다며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이다.

문방위원장이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22개 미디어 관련법을 일괄 기습상정한 직후 '미디어관련법 상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나경원 간사 등 한나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즉흥적으로 법안을 상정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이상득 의원 등이 25일 오전 최고·중진회의에서 법안처리에 사 강경한 주문을 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는 하루

전에 이미 결정됐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26일 "국회 대표실에서 24일 오후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고흥길 위원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모여 미디어관련법을 상정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디어관련법에 처리를 둘러싼 강·온 기류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당의 응징력을 높이고 향후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리에 긴급회의를 개최했던 것. 회의 참석자들은 기습상정 결정을 철저히 함구했고 한나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도 일부만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정도로 철통 같은 보안이 이뤄졌다.

여기에 법안상정의 키를 쥔 고 위원장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민주당의 판단을 흐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19일 미디어법 상정의 강행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긴장감을 높여나갔지만 정작 상정 하루 전날 24일엔 "홍 원내대표가 만류하고 있다"며 연막작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이처럼 철저한 준비를 하는 줄도 모르고 안심하고 있었다. 고 위원장의 발언을 그대로 믿은 것이다.

일부에서는 상임위 일정 중단 등 초강경 대응을 외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연발·초 임시국회의 승리감에 젖어 제대로 저항 한 번 못해보고 당한 것 아니냐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어제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회의 도중 '우왕청심환'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 등 세 번 기량 상정 강행의 징후가 감지됐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실마 상정하겠느냐'고 긴장을 풀었던 게 화근이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세균 대표 "추경편성 협조 않겠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6일 한나라당의 언론 관계법 국회 상임위 기습 상정에 맞서 정부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추경 편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언론악법의 날치기 시도를 사라고 원점으로 돌린다는 약속이 이뤄지고 신뢰회복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국회 일정에도 협조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기습 상정의 법적 효력과 관련, "처리 법안의 명칭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법은 문방위에 상정돼 있지 않으며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치기 미수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기습 상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좌고우면 말라'고 주문했고 형님(이상득 의원)의 독려가 있었다"고 한다"며 "고흥길 문방위원장의

지휘라인은 원내대표인데 청와대와 형님의 눈치를 봐서 그런 것으로, 의회주의 파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방침에는 "우선 추가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력 저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으나 본회의장 점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1·2차 충돌 닮은점·다른점

한나라당의 25일 미디어법안 문화체육관광부 송홍신 위 기습상정으로 지난 연방처럼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차 입법전쟁'이 지난 '1차 입법전쟁' 때와 유사한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긴장 고조→쟁점법안의 한나라당 상임위 단독 상정→여야간 극한 대치 및 국회 파행'이라는 패턴의 반복이다. 한나라당의 새해예산안 처리 강행으로 여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차에 12월18일 집권여당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외교통상통일위 단독상정으로 폭발한 게 작별된 상황이었다.

2월 국회에서도 지난 19일 이후 미디어법안 상정 및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완만할 갈등

與 단독 상정 → 극한 대치 파행 닮은점 폭력 사라지고 회의실만 점거 차이점

폭선을 그리다 미디어법안 기습상정은 여야가 서로 등을 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1개 상임위에서의 대치로 민주당의 '상임위 활동 거부'에 이어 국회 파행, 정국 급랭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닮은 꼴이다.

하지만 지난 연말-연초 여야간 대치가 '폭력 사태'로 규정됐고 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확산했다는 점을 여야 모두 뼈저리게 체감, 구체적인 양상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당시 외통위 사태는 대형 망치와 소화기가 동원된데 이어 같은 동료 의원간 고소·고발로 이

어지는 '폭력'으로 접목됐지만 이번 문방위에서는 밀고당하기만 있었을 뿐이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의회에서의 단독상정 직후 문방위, 행안위 회의실 뿐 아니라 본회의장을 점거, 법안처리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했지만, 이번에는 문방위 회의실 점거에만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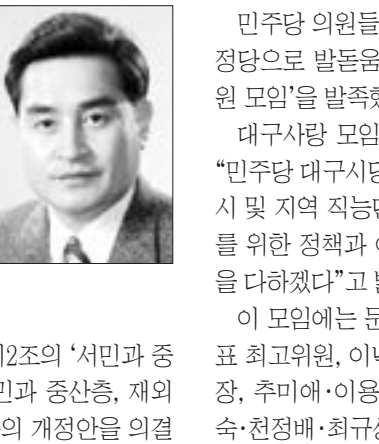
지난해 폭력사태 이후 국회사무처가 본회의장 등 각 회의실 점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시건장치를 새롭게 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충돌 여지를 대폭 줄이기로 전략을 설정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윤석 의원 복당 최종 확정 '대구사랑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발족

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의 복당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석 수는 83석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의원의 복당을 의결한 뒤, 당무위의 최종 인준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당헌 제2조의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조항을 '서민과 중산층, 재외국민의 권익을 대변한다'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의원들이 26일 불모지인 대구지역을 공략,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로 '대구사랑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했다.

대구사랑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대구시당 각 지역위원회와의 결연사업 외에 대구시 및 지역 직능단체와 정기적 정책협의회를 통해 대구시를 위한 정책과 예산, 민원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모임에는 문화상 국회의장과 박주선·송영길·김진표 최고위원, 이낙연 농림식품수산위원장, 이미경 사무총장, 추미애·이용섭·김부겸·조배숙·박은수·이광재·전혜숙·전정배·최규성·최재성 의원 등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 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개강 3월 2일(종합 및 문제풀이)

※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1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할 수강료 교재 25% 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월 완성 6회 반복 학습 영어 기본이 인된 수강생 한할 수강료 50% D/C 교재 25% D/C

※ 종합 1개월 : 16만원 · 문제풀이 1개월 : 13만원 · 단과 : 9만원

경 찰 전문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226-5050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 불황을 이겨내는 방법? 전문자격증 준비!! ★★★

공인중개사 10월 25일 시험

여성 최고의 유망 전문직 아파트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9월 20일 시험**

최강의 교수진 "저자 직장" 전원 서울에서 출강!

광주고시학원

3월 2일 (첫년도 시적반)

직접인 수강료 환급 국비지원 선착순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첨단점 ☎ 971-0002 광주은행 점단점 4층

= 정확한 합격 예약!! 無等과 만나세요. =

7.9 급 공무원 對備 전문

9 직종문제풀이 4주 완성

행교서관감법검마철교보보간복소기 (영어)10기능직 (영어)10기능직

정행무세사원찰약공정호건호지방술

※ 각 지방직(시험5월23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903, 부산 251, 대구 100, 인천 383, 광주 88 대전 105, 울산 66, 경기 630, 강원 180, 충북 162 충남 348, 전북 208, 전남 238, 경북 218, 경남 316 	<p>개강 3월 2일(주-아침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p>	<p>소방직 · 사상최다모집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372, 부산 82, 대구 42, 인천 277, 광주 115 대전 78, 울산 42, 경기 273, 강원 179, 충북 113 충남 188, 전북 116, 전남 190, 경북 128, 경남 110
--	--	--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서우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www.mdgosl.co.kr

건설면허

▶ 건설업 양도 양수

▶ 건설업 구조조정(분할 / 합병)

▶ 신규취득 / 기업진단

부성 M & A ☎ (02)773-5690~1